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

정은숙*

¹한려대학교 간호학과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nd Awareness Levels of Sexual Hara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Eun Sook Chung^{1*}

¹Department of Nursing, Hanly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30일까지 전남소재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74명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의식은 평균 3.00±0.29점, 성평등 의식은 평균 1.97±0.39점, 성희롱 인식 수준은 평균 4.09±0.54점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인식수준은 성별, 전공, 주거형태 및 성평등 의식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성의식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의 성희롱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전공, 주거형태, 성의식, 성평등 의식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대학생들의 성희롱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별, 전공, 주거형태, 성의식, 성평등 의식 차이에 따라 세분화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대학문화 확립을 위한 성희롱의 예방대책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nd awareness levels of sexual hara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s: As a descriptive, correlative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74 college students. The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April 23 to 30, 2015.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nd sexual harassment awareness levels averaged 3.00 (range of score 1-5), 1.97(1-4) and 4.09 (1-5), respectively. Awareness levels of sexual harass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xual consciousness,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ender, major field of study, living patterns, and gender egalitarianism. Conclusion: This study has identified sexual consciousness and gender egalitarianism, as well as the associated influencing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and program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Keywords :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consciousness, Awareness levels of sexual harass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새로운 세기와 함께 더욱 성숙되어가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되고, 인간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인간을 필요로 한다[1].

인간의 성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그 사람의 삶과 함께 존재하며, 인간다움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대학생들은 생애 중 가장 다양하고 의미가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정체감, 인생관, 가치관 등을 확립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정립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3]. 이 시기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Chung(Hanlyo Univ.)

Tel: +82-61-760-1395 email: esjda@naver.com

Received June 8, 2015

Revised (1st July 1, 2015, 2nd July 8,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는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정체성과 이성과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성적호기심과 충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4]. 또한, 최근 성역할의 혼돈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이전 시대의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성정체성과 성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5]. 개인에 따라 성에 관심이 나타나는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면서 자유와 재량의 범위가 커지고 성적활동이 보다 더 활발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할 수 있고, 이성과의 만남을 대학시절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1,3,6,7,8]. 대학생의 성행동경험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학생의 경우 성관계경험이 40%이상, 여학생의 경우 8.1%이며, 4명 중 1명이 피임을 하고 있고, 대학생 중 74.0%가 키스와 포옹의 성적접촉을 하고 있다[9]. Shin[10]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성관계경험은 50.3%, 여학생은 17.5%였으며,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은 77.6%였고, 키스 및 포옹 경험이 76.0%였다. 성관계경험 대학생의 11.6%가 원하지 않은 임신경험과 94.4%가 인공유산 경험이 있었다. 성병경험은 7.1%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임법은 콘돔이었다.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안전한 성에 대한 충분한 성지식이 부족하여 성경험을 증가와 함께 성병 및 AIDS, 미혼모 및 낙태 등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7]. 대학생의 성적활동이 뚜렷하고 성규범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고 허용적인 대학 문화 분위기와 개방적인 성문화를 접함으로써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성행동으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11].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에서 성 건강관련 정보와 관련된 체계적인 성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시기에 발달하는 성의식은 곧바로 성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에 반발하고 불안, 수치,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성적인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성에게 냉담해지기도 하며, 무분별하게 성충동을 발산하기도 한다[12]. 따라서 건전한 성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중과 성평등 의식 관점에서 올바른 성의식과 성규범을 확립할 필

요가 있다[4].

성평등 의식은 성에 관한 주요개념으로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이 차이가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변화 중 하나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이다. 최근 정부는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 의식의 효과를 위해 여성정책전략을 세워 집행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13]. 세계평등포럼에서 매년 측정하는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 우리나라는 136개국에서 111위로 하위수준이었다[14]. 이는 제도적, 정책적으로 남녀가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지위가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 의식은 자신의 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인격형성이나 이성관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15].

성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며 문제인 성희롱은 객관적 관점보다 주관적인 심리상태에 의해 정의된다[3,16,17]. 성희롱은 남녀 간 혹은 개인 간의 사소한 언행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성별의 문제이며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속된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와 행동을 할 때 일어난다[18,19]. 우리사회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대학생의 역할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초기 성인기 여성의 교육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대학 내 여학생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남성중심문화에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문제와 성희롱문제가 존재하고 있다[1]. 성희롱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대학교와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성희롱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 내 노동인력으로 진입될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성의식과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건강한 대학 내 성문화구축을 위한 성희롱 예방프로그램과 예방대책을 개발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수준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수준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성의식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성에 대해 접근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20]. 본 연구에서는 Lee[12]가 개발한 성의식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1.3.2 성평등 의식

남녀에게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성평등 의식에 기여하는 것이다[21]. 본 연구에서 ‘성평등 의식’이라 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 의식 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KGES)’로 측정된 점수로써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과 직업생활 영역에서의 평등 의식에 관한 측정 점수이다.

1.3.3 성희롱 인식 수준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과 관련된 언어와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동이다[1]. 본 연구에서 성희롱 인식 수준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성 정체성과 태도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인지이다. ‘성희롱 인식 수준’ 정도라 함은 Im [22]과 Lee[23]가 성희롱 인식조사용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성희롱의 인식에는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 원인이 내용에 포함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 소재 1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수를 위하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산출하였다. 다중선행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 16개, 효과크기는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 ($1-\beta$) .8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은 145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응답률을 고려하여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274부가 최종분석 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성의식

대학생의 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Lee[12]가 개발한 성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3문항, 이성교제(6문항), 순결(4문항), 임신(2문항), 결혼(1문항), 성충동(4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이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Cronbach = α .76이었다.

2.3.2 성평등 의식

성평등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남녀 평등의식 검사지(KGES)’이다[21]. 이 측정도구는 남녀의 능력과 성격, 사회적 권리와 자유, 평등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 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가정생활이 Cronbach's α =.91, 교육생활이 Cronbach's α =.91, 사회문화생활이 Cronbach's α =.87, 직업생활이 Cronbach's α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였으며, 가정생활이 Cronbach's α =.68 교육생활이 Cronbach's α =.85 사회 문화생활이 Cronbach's α =.76 직업생활이 Cronbach's α =.78이었다.

2.3.3 성희롱 인식 수준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Im[22]과 Lee[23]의 성희롱 인식조사용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모성간호학 교수 2명과 성교육 전문가 3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성희롱의 개념(5문항), 성희롱 유형(15문항), 성희롱 원인(7문항)으로 총 27문항의 자기기입식 설문지이다.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5개의 역산문항을 가지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2][23]에서는 신뢰도를 알 수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a=.90이었다.

2.4 자료수집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학과 학과장님을 통해 담당교수와 학생의 동의를 얻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보호윤리를 설명을 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에게만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과정에서 언제든지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 자료는 정해진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280명의 자료를 회수하였으며(응답률 91.7%),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274명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 성희롱 인식 수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의 정도는 t-test,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 성희롱 인식 수준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에서 여학생은 166명(60.6%), 남학생은 108명(39.4%)이었다. 나이는 20세 이하가 106명(38.7%), 21-22세가 91명(33.2%), 23세 이상이 77명(28.1%)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87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46명(16.8%)으로 가장 적었으며, 전공은 간호계열이 151명(55.1%), 비 간호계열이 123명(44.9%)이었다. 주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주거는 69(25.2%), 자취 109명(39.8%), 기숙사 96명(35.0%)이고, 종교는 기독교 72명(26.3%), 불교 25명(9.1%), 가톨릭 24명(8.8%) 순이었다. 동거경험 있음은 26명(9.5%), 없음은 248명(90.5%)이었고, 이성교제 있음은 217명(79.2%), 없음은 57명(20.8%)이었다. 성관계경험 있음은 84명(30.7%), 없음은 190명(69.3%)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74)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Female	166 (60.6)
	Male	108 (39.4)
Age	≤20	106 (38.7)
	21-22	91 (33.2)
	≥23	77(28.1)
Grade	Freshman	61 (22.3)
	Sophomore	46 (16.8)
	Junior	87 (31.8)
	Senior	80 (29.1)
Major	Nursing	151 (55.1)
	Non-Nursing	123 (44.9)
Residence	With family	69 (25.2)
	Alone	109 (39.8)
	Dormitory	96 (35.0)
Religion	Christian	72 (26.3)
	Catholicism	24 (8.8)
	Buddhism	25 (9.1)

	No or other	153 (55.8)
Together experience	Yes	26 (9.5)
	No	248 (90.5)
Pocket mone (10,000 won)	<30	131 (47.8)
	30-50	114 (41.6)
	>50	29 (10.6)
Pocket money source	Part-time job	25 (9.2)
	Parents	180 (66.2)
	Both	67 (24.6)
Expense of dating	Male>Female	99 (36.3)
	Male=Female	164 (60.1)
	Male<Female	10 (3.6)
Relationship experience	Yes	217 (79.2)
	No	57 (20.8)
Sexual relations experience	Yes	84 (30.7)
	No	190 (69.3)

3.2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 정도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들의 성의식(Cronbach's $\alpha = .759$)은 평균 3.00 ± 0.29 점이었으며, 성평등 의식(Cronbach's $\alpha = .910$)은 평균 1.97 ± 0.39 점이었다. 성희롱 인식 수준(Cronbach's $\alpha = .902$)은 평균 4.09 ± 0.54 점이었다. 성희롱의 개념영역이 4.65 ± 0.51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유형이 4.21 ± 0.84 점, 시각적 유형이 3.97 ± 0.85 점, 언어적 유형이 3.91 ± 0.91 점,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이 3.68 ± 0.62 점 순이었다.

Table 2. Degree of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wareness Level of Sexual Harassment (N=274)

Variables	Range	M±SD	Min	Max
Sexual Consciousness	1-5	3.00±0.29	2.15	4.00
Gender Egalitarianism	1-4	1.97±0.39	1.00	2.97
Awareness Level of Sexual Harassment	1-5	4.09±0.54	2.16	5.00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의식에서는 남학생(3.07 ± 0.29)이 여학생(2.95 ± 0.28)보다 높았고 ($t=3.458$

$p=0.001$), 비 간호계열(3.09 ± 0.28)의 성의식이 간호학계열(2.92 ± 0.27)보다 높았다($t=-5.012$, $p<0.001$). 연령에 서는 23세 이상(3.11 ± 0.26)의 성의식이 21-22세 (2.97 ± 0.31) 및 20세 이하(2.94 ± 0.27)보다 높았다 ($F=9.155$, $p<0.001$).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 (3.07 ± 0.30)의 성의식이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 (2.96 ± 0.28)보다 높 았고($t=-2.901$, $p=0.004$), 성평등 의식에서는 동거경험 이 있는 대상자(2.12 ± 4.00)의 성평등 의식이 동거경험이 없는 대상자(1.95 ± 0.3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27$, $p=0.044$). 성희롱 인식 수준은 여학생(4.18 ± 0.61)이 남 학생(3.92 ± 0.49)보다 높았고($t=3.749$, $p<0.001$), 간호학 계열(4.19 ± 0.60)이 비 간호계열(3.95 ± 0.52)보다 높았다 ($t=3.462$, $p=0.001$). 주거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주거 (4.27 ± 0.58)가 대상자들의 성희롱 인식 수준이 자취 (4.02 ± 0.55) 및 기숙사(4.01 ± 0.59)에 주거하는 대상자보 다 높았다($F=4.922$, $p=0.008$).

3.4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수준의 상관관계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의 상관관계 는 표 3과 같다. 성희롱 인식 수준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성의식($r=0.109$, $p<0.05$)이었고,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r=-0.227$, $p<0.01$), 전공 ($r=-0.211$, $p<0.01$), 주거형태($r=-0.158$, $p<0.01$) 및 성 평등 의식($r=-0.151$, $p<0.01$)이었다.

3.5 성희롱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희롱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5와 같 다. 성희롱 인식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인 성별, 전공 및 주거형태와 성의식 및 성평등 의식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희롱 인식 수준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B=-0.140$, $SE=0.071$, $p=0.049$), 간호계열에 비하여 비 간호계열이($B=-0.225$, $SE=0.078$, $p=0.004$),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대상자에 비하여 기숙 사에 주거하는 대상자($B=-0.245$, $SE=0.082$, $p=0.003$), 성의식($B=0.264$, $SE=0.112$, $p=0.019$) 및 성평등 의식 ($B=-0.225$ $SE=0.080$, $p=0.001$)이었다.

Table 3. Differences of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wareness Level of Sexual Harassm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wareness Level of Sexual Harassm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Female	2.95±0.28	-3.458	1.93±0.41	-1.863	4.18±0.61	3.749
	Male	3.07±0.29	(.001)	2.02±0.36	(.064)	3.92±0.49	(<.001)
Age	≤ 20 ^a	2.94±0.27	9.155	1.92±0.39	1.647	4.12±0.58	1.507
	21-22 ^b	2.97±0.31	(<.001)	1.99±0.37	(.195)	4.00±0.62	(.223)
	≥ 23 ^c	3.11±0.26	(c>a,b)	2.02±0.39		4.13±0.52	
Grade	Freshman	3.00±0.29	1.987	1.91±0.40	1.104	4.09±0.65	0.322
	Sophomore	2.89±0.28	(.053)	1.93±0.33	(.348)	4.00±0.57	(.442)
	Junior	3.03±0.31		1.99±0.43		4.10±0.49	
	Senior	3.02±0.25		2.02±0.36		4.09±0.62	
Major	Nursing	2.92±0.27	-5.012	1.93±0.39	-1.778	4.19±0.60	3.462
	Non-Nursing	3.09±0.28	(<.001)	2.01±0.39	(.077)	3.95±0.52	(.001)
Residence	With family	2.99±0.30	1.907	2.01±0.41	0.559	4.27±0.58	4.922
	Alone	3.04±3.00	(.151)	1.97±0.38	(.573)	4.02±0.55	(.008)
	Dormitory	2.97±0.26		1.94±0.39		4.01±0.59	(a>b,c)
Religion	Christian	3.00±0.25	0.139	2.01±0.39	0.721	4.13±0.60	1.379
	Catholicism	2.96±0.39	(.937)	1.88±0.46	(.540)	4.24±0.56	(.250)
	Buddhism	2.99±0.23		1.98±0.40		3.93±0.63	
	No or other	3.00±0.29		1.96±0.38		4.06±0.56	
Together experience	Yes	3.01±0.34	0.184	2.12±4.00	2.127	4.05±0.44	-0.315
	No	3.00±0.28	(.854)	1.95±0.39	(.034)	4.08±0.59	(.753)
Pocket money (10,000 won)	<30	2.98±0.27	1.921	1.95±0.42	1.201	4.09±0.64	0.214
	30-50	2.99±0.31	(.148)	1.97±0.36	(.303)	4.09±0.50	(.808)
	>50	3.09±0.26		2.07±0.38		4.01±0.56	
Pocket money source	Part-time job	3.07±0.37	1.270	1.95±0.38	0.303	4.09±0.50	0.019
	Parents	2.98±0.27	(.283)	1.98±0.40	(.739)	4.08±0.64	(.981)
	Both	3.02±0.29		1.94±0.37		4.07±0.43	
Expense of dating	Male>Female	3.00±0.29	0.105	2.05±0.36	1.677	4.06±0.57	0.171
	Male=Female	3.00±0.29	(.900)	1.92±0.41	(.167)	4.10±0.59	(.843)
	Male<Female	2.96±0.27		1.97±0.39		4.06±0.50	
Relationship experience	Yes	2.99±0.28	(.652)	1.96±0.38	(.484)	4.09±0.55	-0.415
	No	3.01±0.31	0.452	2.00±0.43	0.701	4.05±0.67	(.678)
Sexual relation experience	Yes	3.07±0.30	(.004)	1.96±0.42	(.863)	3.99±0.46	1.674
	No	2.96±0.28	-2.901	1.97±0.38	0.172	4.12±0.62	(.095)

^{a-c}Scheffé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4. 논의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사회진출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있다. 대학

생들은 발달단계에서 초기 성인기에 속하며, 이 시기에 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건전한 성의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올바른 성정체성과 안전하고 건전한 성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1]. 본 연구에서 성의식정도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성

Table 4. Correlation of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wareness Level of Sexual Harassment (N=274)

Variables	Awareness Level of Sexual Harassment	Gender	Major	Residence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wareness Level of Sexual Harassment	1					
Gender	-.227**	1				
Major	-.211**	.439**	1			
Residence	-.158**	.044	-.163**	1		
Sexual Consciousness	.109*	.205**	.291**	-.044	1	
Gender Egalitarianism	-.151**	.088	.078	-.049	.099	1

* p<.05, ** p<.001

별, 연령, 전공, 주거형태, 성관계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Lee[10]의 도구를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Sung[4]의 연구에서 나타난 3.13보다 낮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성의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발달하여 Lee[10], Sung[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관계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9.3%로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30.7%에 비해 많다는 것은 연구결과에서 볼 때 남학생인 경우,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성의식이 개방적일수록 성관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Kong[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비 간호계열학생이 간호계열학생보다 성의식이 높은 것은 비 간호계열학파에 남학생이 많고 남학생의 성의식정도가 높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Choi 등의 연구[25]에서 성의식은 감정이나 성욕, 성적접촉, 피임 등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적의사결정능력의 정도를 나타내어 수치상으로 비교해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Chang 등[26]은 대학생 성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는 성의식 관련 정보와 관련된 인지적, 심리적, 행위적 의사결정능력과 반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성의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대학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적절한 성교육이 이루어지면 대학생들은 물론 대학 졸업한 이후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정도는 4점 만점에 1.97점으로 중간 수준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오직 동거경험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 의식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Lee 등[3], Yoo 등[11], Han 등[27]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성평

등 의식이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Kim 등[21]의 도구를 사용하여 4점 척도로 조사한 Kim[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연구[28]의 결과에서 국내 직장생활 성평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주로 남성이 담당하고 중요도가 낮고 보조적인 업무는 여성이 담당하는 성별분리현상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클수록 성평등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성평등 의식 지침이 있는 기업일수록 성별분리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간호계열학생은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가 낮고 보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많은 간호계열학생이 비 간호계열학생보다 성평등 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장차 직장 내 간호전문직으로 역할을 수행할 간호계열학생으로서 성역할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성정체성을 정립하여 성평등 의식을 정착화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년이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 높은 것으로 나타나 Lee[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벗어나 초기 성인기로 갓 진입한 1학년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가되고 이성과의 교제 등을 통해 성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성평등 의식이 변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거경험유무에 따라 성평등 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성평등 의식이 더 높았다. 동거경험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for Awareness Level of Sexual Harassment

(N=274)

Characteristic	B	SE	β	t	p-value
Constant	4.078	0.360		11.343	<0.001
Male	-0.140	0.071	-0.127	-1.969	0.049
Healthcare science	-0.225	0.078	-0.209	-2.872	0.004
Alone	-0.092	0.082	-0.084	-1.120	0.264
Dormitory	-0.245	0.082	-0.216	-2.987	0.003
Sexual Consciousness	0.264	0.112	0.142	2.359	0.019
Gender Egalitarianism	-0.256	0.080	-0.187	-3.219	0.001

성희롱 인식 수준정도는 5점 만점에 4.09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전공,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Im[22]와 Lee[23]의 도구를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Lee [3], Kim[30]의 연구와 일치하게 여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계열에 여학생들이 많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성희롱 인식 수준의 높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가 성희롱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비교는 제한적이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형태에 따른 성경험을 분석한 Kim[29]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는 학생이 성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소통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올바른 판단아래 성경험을 유도하게 되므로 성경험을 낮추는 것으로 유추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남성중심문화는 인간존엄과 남녀평등의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연결되어 성희롱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1]을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인식수준과 성의식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성희롱 인식수준과 성평등 의식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식이 개방적이고 성평등 의식이 낮은 경우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의식, 가치관, 건전한 성평등의식을 높이고 여학생과 남학생이 동등한 인격체로 남녀관계를 정립하여 차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성희롱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를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연구는 전국 대학생들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남소재 1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성의식은 성별, 나이, 전공, 성경험, 피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평등의식은 동거경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희롱 인식수준은 성별, 전공, 주거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성희롱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간호학계열에 비하여 비간호계열의 성희롱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낮다. 성희롱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전공, 주거형태, 성의식, 성평등의식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비간호계열학생, 기숙사에 주거하는 학생이 성희롱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의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녀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의식과 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대학생들의 성희롱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관된 성희롱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보다 성별, 전공, 주거형태, 성의식, 성평등의식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게 되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문제의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건전한 조직문화정립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성희롱인식 수준이 올바른 성의식과 건전한 성평등의식, 그리고 건전한 대학문화 확립을 위한 결론성희롱 예방대책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H. K. Moon, "Effects of Education Program on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2009.
- [2] E. J. Kim,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21(1), pp.60-68, 2014.
- [3] Y. R. Lee, K. M. Kim, S. E. Choi,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4(1), pp.40-50, 2013.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3.24.1.40>
- [4] M. H. Sung,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Sex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5(1), pp.73-80, 2009.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09.15.1.73>
- [5] M. O. Kim,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 pp.3876-38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876>
- [6] S. H. Kim, W. C. Yoon,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pp.248-257, August 2012.
- [7] G. S. Yoo, S. H. Kang,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Sex and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1), pp.101-118, 2010.
- [8] G. S. Jeon, H. Y. Lee, S. J. Rhe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J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 pp.45-68. 2004.
- [9] A. R. Sohn, S. S. Chun,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Social Science*, 18, pp.73-100. 2005.
- [10] K. R. Shin, H. J. Park, K. E. Bae, C.H. Cha,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22(6), pp.624-633, 2010.
- [11] M. S. Yoo, J. W. Park, M. A. You,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s and sexual harassment myth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6(1), pp.14-22, 2012.
- [12] K.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and Sexual Consciousness and Behavior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 Ju*, 2006.
- [13] Y. H. Kim, H. W. Kang, "A study on gender egalitarianism of Kyonggi University Students", *The Civil Humanities*, 16, pp.127-164, 2009.
- [14]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
- [15] J. Y. Lee, S. A. Ha, H. J. Chung,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 pp.149-172, 2005.
- [16] L. F. Fitzgerald, "Sexual harassment: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a construct. In M. A. Paludi, *Sexual harassment on college campus: Abusing the Ivory Power* (2nd ed).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 [17] H. S. Ha, "Sexual harassment coping style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 pp.785-800, 2007.
- [18] J. Ryan, K. Sylvia, "Risk and Ideology in Sexual Harassment", *Sociological Inquiry*, 61, pp.231-241, 1991.
DOI: <http://dx.doi.org/10.1111/j.1475-682X.1991.tb00277.x>
- [19] H. M. Jung, "The awareness and related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on sexual harassment.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7(2), pp.277-287, 2003.
- [20] K. S. Joo, "The Effects of the group counselling programme of sex education on the improvement in sexual awareness and self-esteem of young people in custo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2002.
- [21] Y. H. Kim, K. A. Jung.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9.
- [22] D. J. Im, "A study on cognition of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1999.
- [23] J. S. Lee, "A recogni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office according to source of var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24] M, H, Kong. "Sexual Experiences & Violence and Its Impact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Focused on

- Busan & Kyungnam Area. *Journal of women's studies*, 21, p. 69-94, 2010.
- [25] C, I. Choi, J, Y. Park, "A Research on University Students of Sexual Consciousness and Violence". *Student Guidance Center Dong-A University Research Review*, 33, pp.305-336, 2004.
- [26] S, b. Chang, M. K. Lee,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 Korea Acad Nurs*, 33, pp.339-346, 2003.
- [27] J. A. Han, S. Lee, "Effects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20(1), pp.1-17, 2014.
- [28] S. S. An, Y. S Kim, K. M, Kim, Public survey on the practices of gender equality and its barriers(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09.
- [29] J. A. Kim, J. Y. Le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the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Sexual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0(3), pp. 71-80, 2014.
- [30] S. J. Kim,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2), pp.307-342, 2015.
-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2.352>

정은숙(Eun-Sook Chung)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재학 중
- 2013년 8월 ~ 현재 : 한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간호윤리